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김승수 전주시장, 국회 방문 예결위원들 만나 예산 반영 적극 요청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시가 전주야구장 리모델링과 그린뉴딜 정원지식산업센터 구축 등 전주 발전을 이끌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0월 29일 국회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주요사업 소관 상임위원들과 행정규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국회 예결위원들을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 지원에 대한 당부성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벌였다.

김승수 시장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비례)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을 등을 만난 자리에서 △그린뉴딜 정원지식산업센터 구축 △전주야구장 리모델링 사업 등이 소관 상임위에서 국가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행정규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 예결위 간사와 박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을),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구을) 등 예결위원을 만나 중점 추진 사업 4건의 예산 반영을 건의하며, 전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주요사업들이 삭감되지 않고 증액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주시가 국회 심의단계에서 예산 반영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0월 29일 국회를 방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비례)을 만나 그린뉴딜 정원지식산업센터 구축 등 현안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그린뉴딜 정원지식산업센터 구축(230억) △전주야구장 리모델링(300억)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433억)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허브구축(238억) 등이다.

시는 국회 예산 심사기간에 맞춰 국가예산추진단을 국회에 상주시켜 정책질의서를 제공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역 정치권 및 전 북연고 국회의원과들의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실과 4

차례, 국민의힘 전주시 동행의원들과 3차례에 걸쳐 정책간담회를 펼치는 등 정치권의 지원과 협조를 강화해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전주의 미래를 이끌 성장 동력을 만들면 시민들의 삶이 행복하게 바뀌어나갈 국가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역 정치권, 전북도와 끈끈하게 공조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온라인 '제15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 성료

전주시, '나에게 ON 평생학습' 주제 50여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전주시민들이 온라인에서 함께 즐기는 체험형 학습축제인 '제15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이 지난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펼쳐졌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열리지 못했던 전주평생학습한마당은 올해 기존 3일간의 행사 기간을 1주일로 변경하고, 3주간의 사전행사를 진행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나에게 ON 평생학습'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전주평생학습한마당에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미디어센터 등 30여 기관이 참여해 약 5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개막식 날 진행된 '전주야 학습매거지' 온라인 끝판벨 프로그램에는 시민은 물론, 경주와 파주 등 전국에서 약 4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전주정신 '꽃심'과 전주의 환경, 인권 등에 대한 10분 정도의 간략한 특강을 들은 뒤 퀴즈를 풀어, 학습 성과에 따라 끝판벨 우



승자 200명에게 소정의 선물이 지급됐다.

또한 '주간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이 ON다'를 통해 진행된 △지연을 담은 목공교실 △나를 아로새기는 수제도장 △제철 전주부드를 활용한 조리수업 △수공예 도시에 어울리는 손바느질 작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에는 약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높은 인기를 보였다.

이와 함께 전주시 20여 개의 평생학습기관에서는 '당근(당신 근처의) 평생학습'을 통해 약 2000여 명

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관의 위치와 기능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보이는 라디오인 '평생학습 라디오 ON'에서는 시민 인터뷰를 진행해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기회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학습의 때를 되찾고자 노력하는 성인문해 학습자들이 직접 시화전시와 시낭독에 나선 '솔찬히 하네'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참여 영상은 '평생학습도시 전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창업경진대회서 우수 청년창업가 5팀 발굴

시·오렌지플래닛, '코믹 점프 액션 게임 개발' 나선 '펍킴' 팀 대상 수상

전주시와 오렌지플래닛 산실인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에서 글로벌 스타트업의 꿈을 펼쳐나갈 유망 청년창업가들이 탄생했다.

전주시와 오렌지플래닛은 지난 29일 금안동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에서 제3회 전주창업경진대회를 열고 대상 수상한 '펍킴' 팀 등 우수 청년창업가 5팀을 선발했다.

제3회 전주창업경진대회는 지난 9월 23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전국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가운데 지난해보다 29건이 늘어난 총 131명이 접수하는 등 청년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청년창업가의 경진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 열린 현장 PT 발표에서는 △전통문화유산 상품 브랜딩 △판소리를 접목한 공연 관련 콘텐츠 개발 △페퍼링 활용 리사이클 섬유와 한지를 결합한 골프웨어 개발 △코믹 점프 액션 게임 개발 △기록형 스포츠 매칭 플랫폼 등 다양한 창업 콘셉트가 열린 경연을 펼쳤다.

결선 결과 '코믹 점프 액션 게임 개발'에 나선 펍킴 팀이 심사위원들의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대상을 수상한 펍킴 팀은 상금 1500만 원을 받게 됐으며, 향후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에 입주해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또 최우수상에는 썬지연구소 팀과 퍼즐씨앤씨 팀이, 우수상에는 동문창업 팀과 콜베어스 팀이 선정돼 각각 1000만 원과 750만 원의 상금을 받았으며,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에 입주할 기회도 획득했다.

향후 시는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의 초기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고 전문화된 액셀러레이터 사업과 멘토링, 특강 등을 제공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서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해 창업경진대회에서는 창업 아이템을 구상 중인 예비단계 창업자보다 실질 창업 아이템을 구현하고 있는 초기단계 창업자가 4배나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가 청년창업자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추진했던 민간유치 중심의 액셀러레이팅 프

로그램이 안정화되면서 이에 참여하기 위한 창업자들의 신청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됐다.

이에 앞서 시는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를 개소하고 15팀의 보육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치 3개사, 9억 원, 창업지원 사업 유치 23건, 약 10억 원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서상봉 오렌지플래닛 센터장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많은 스타트업을 보며 대표님들의 열정과 창업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오렌지플래닛은 전주시와 함께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관계자는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이 될 기회와 시 작을 청년 창업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며 “청년들이 전주의 밝은 미래와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청년창업 활성화 등 전주형 창업 생태계 마련에 행정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전주형 우수공동체 5곳 선정

전주시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해 온 우수공동체를 선정해 성장을 돕기로 했다.

시는 공동체의 질적 성장과 우수공동체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모범적으로 활동 중인 삼천도시대학협의회 등 5개의 전주형 우수공동체를 선정,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월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문제 해결 △생활문화 △공예 △교육 등 분야별 우수공동체를 발굴해 타 공동체의 모델로 육성함으로써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선정된 5개 공동체는 △지역문제 해결 분야 - 삼천도시대학협의회 △생활문화 분야 - 동화나래연구소 △공예 분야 - 착한사람들 △교육 분야 - 사랑방교육문화복지공동체, 나뉜DREAM 돌봄교육연구센터 등이다. 우수공동체

로 선정된 5개 공동체에는 전주시장 표창을 비롯해 우수공동체 활동스토리 사례집 발간 기회 등이 제공된다.

이에 앞서 시는 희망단계를 졸업한 20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우수공동체 공모 신청을 접수했으며, △지역봉사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소속증대 △자원확충 △조직 활성화 등 5가지 선정지표를 기준으로 우수공동체를 선정했다.

전주시설공단, 릴레이 비대면 고객간담회로 시민과 소통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대면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시키고 물리적 제한 없이 고객과의 소통을 지속하기 위해 릴레이 비대면 고객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고객과 대면할 기회가 줄어들자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2달간 비대면 고객간담회를 추진했다. 간담회는 각 시설별 릴레이로 총 16차례 진행됐다. 시설 이용객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이다. 체육시설 이용객뿐 아니라 승화원, 계시대와 벽보관 이용객,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이지콜'과 마을버스 '바로온' 승객,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입주자 등 총 240명이 간담회에 참여했다. 또,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성별과 연령 등을 다양화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일상생활 또는 업무 중에도 틈틈이 짚을 내 의견을 낼 수 있어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